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2.2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 법원, 대통령 공격 모의 극우 단체 회원들에 유죄 선고
 - 2.18 프랑스 법원은 지난 '18년 「마크롱 대통령」을 흉기로 피습하기 위해 온라인(페이스북 '레 바르졸' 그룹)에서 공모한 극우 회원들 13명 중 4명에 대해 최대 '징역 4년(집행유예 1년)'을 선고
 - * 검찰은 “同人들이 '17년부터 佛 대통령에 대해 증오감을 표시하며 테러를 공모했고, 그 위협은 현실적인 데다가 폭력에 사로잡힌 모습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유사하다”고 주장

미주

- 美 법원, 흑인 겨냥 총기 난사 10대 남성 '종신형' 선고
 - 2.15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5월 '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낸다'는 음모론을 신봉, 버펄로市 소재 흑인밀집지역에서 총기를 난사(사망 10, 부상 3)한 「젠드런」(19세)에 대해 가석방 없는 '종신형' 선고
- 美,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ISIS 고위간부 사살
 - 2.18 美중부사령부는 16일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ISIS 시리아 동부 거점장 「함자 알-홈시」를 제거하였으며, 같은 시간 전개된 별도 작전을 통해 ISIS 암살조직 관리자(실명 미공개)를 추가로 사살했다고 발표
 - * 美軍은 ISIS 근거지에 대한 헬기 습격 이후 특수부대원·군견을 투입하여 대상자 제거

아·태평양

- 경찰, '암호화폐' 이용 테러자금 지원 외국인 2명 구속
 - 2.16 경찰은 '21.11~'22.4월까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총 1,100만원 상당을 테러단체 KTJ*(타우히드 바 지호드 여단)에 송금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·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남성 2명(31·29세) 구속
 - * '14.8월 결성(600여명)된 테러조직으로 '22.3월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
 - ** 同伴은 해외 테러단체 송금에 현금 계좌가 아닌 '암호화폐' 이용이 확인된 최초 사례

중 동

○ UN, 알카에다 새 수장으로 이집트 前특수부대원 지목

- 2.15 언론은 UN안보리가 지난해 아프간 카불에서 美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알카에다 前수장 「알 자와히리」 후임으로 이집트 특수부대 출신 「사이프 알 아델*」 (62세)을 지목했다고 보도

* '80년대부터 이집트 극단주의 단체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(EIJ, 이후 알카에다에 흡수)에서 활동했으며, '98년 케냐·탄자니아 주재 美대사관 테러 배후로 지목

○ 이스라엘, 지진 이후 시리아 수도 첫 공습으로 민간인 등 20명 사상

- 2.19 외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內 이란 무기 유입 차단을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·알레포 공항 등을 공격하여 사상자 20여명(사망 5) 발생, 최근 이스라엘·이란이 '그림자 전쟁*'에서 벗어나 충돌이 두드러진다고 분석

*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해 상호 비밀 공격·보복하는 것을 의미

아프리카

○ UN 사무총장, '사헬지역 테러단체' 준동에 우려 표명

- 2.18 「안토니우 구테흐스」 UN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연합(AU) 정상 회의에서 “아프리카 內 평화를 위한 노력이 위협받고 있으며, 특히 사헬지역 테러조직 및 콩고 반군단체 준동이 크게 우려된다”고 발언

* 최근 사헬지역 內 서방군대 철군·가뭄·인플레이션 등으로 야기된 불안한 정세를 틈타 ISIS·알카에다·알샤바브 등 테러조직 연계세력 지속 증가 추세

○ 부르키나파소,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으로 정부軍 51명 사망

- 2.20 언론은 지난 17일 부르키나파소의 말리 접경 우달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으로 정부軍 51명이 사망했으며, 이후 정부軍의 반격으로 조직원 160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
* 同공격은 군부 정권이 자국에 주둔 중인 佛특수부대 철군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발생

팔레스타인, 스위스 항공기 겨냥 '우편소포 폭탄' 테러

- '70.2.21 홍콩행 항공기가 스위스에서 이륙 이후 9분만에 폭발되면서 인근 숲에 추락, 탑승자 전원(47명)이 死亡
 - 테러리스트는 기압 변화에 따라 작동하는 기폭 장치를 사용하였으며, 테러단체와 무관한 소녀에게 사주하여 '우편소포 폭탄'을 기내로 반입
 - 당시, 항공기 추락 지점 2km 이내에 핵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大참사 발생 위험성도 존재하였으나,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未발생
-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(PFLP)*은 “스위스의 PFLP 조직원에 대한 유죄판결 보복으로 同 테러를 자행했다”고 성명 발표
 - * 팔레스타인 해방기구(PLO) 산하 극좌성향의 정당이자 테러단체
- 한편, 일각에서는 '70.9.6 PFLP의 연쇄 항공기 납치사건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PLO와 “자국민 해방 조건으로 상기사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”는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”고 주장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(PFLP) >

*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

- (목표·이념)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'67년 결성, 팔레스타인 해방기구(PLO) 內 가장 강경한 급진파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년), 캐나다('03년) / 규모 : 800여명
- (연계세력) 하마스(Hamas), 헤즈볼라(Hezbollah) 및 군소 무장단체(PFLP-GC, DFLP) 등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서안 및 가자지구, 이스라엘, 시리아, 레바논 등
- (주요테러) '70.9.6(일) 스위스·이스라엘·영국 등 비행기 4대를 공중에서 동시 납치 (일명 '스카이 잭 선데이'), 美 9.11 테러 전 최악의 비행기 테러로 평가
'06.3 가자지구에서 '지도자 석방' 요구하며 KBS 기자 등 납치 후 석방, 현재는 항공기 납치보다는 로켓공격·인질납치(民·軍) 등에 집중

